

---

# NHN NEXT 교수과외활동지원제도

2013년 ver.1

---

1. 교수과외활동지원제도 목적 .....	2
2. 교수과외활동 유형 .....	2
2.1. 개인과외활동 규정 .....	2
2.2. 업무과외활동 규정 .....	3

## 1. 교수과외활동지원제도 목적

교수과외활동지원제도는 NEXT 교육의 가장 중요한 철학 중 하나인 '현장을 통한 학습'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교수들이 현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되었습니다. NEXT의 교수들은 커뮤니티 활동이나 산학협력, 대외활동 등의 다양한 과외 활동을 통해 현장성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교육에까지 연결되도록 해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2~3년 뒤에 꼭 필요한 것을 알고 있는 것, 즉 'What to deliver'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현장성을 유지하는 것과, 그것을 잘 전달하기 위한 방법을 아는 것, 즉 'How to deliver'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교육자로서의 자질은 조금 다릅니다.

NEXT의 교수과외활동제도는 교수들이 현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과 이를 통해 교육에 필요한 지식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더불어 NEXT 교수들이 기술 domain에서의 전문성을 높여가야 한다는 측면과, social & community contribution 측면, 그리고 NEXT name value 향상 측면에서 과외활동은 필요하며, 이런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과외활동이 권장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측면에서 NEXT 교수의 과외활동은 일반대학의 연구 활동(일반대학은 논문을 장려한다면, NEXT는 저술과 개발 활동을 장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NEXT는 교수들의 과외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할 것입니다.

## 2. 교수과외활동 유형

교수들의 과외활동을 1) 교수가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경우와 2)학교의 직접적인 지원이나 개입이 필요한 경우로 구분됩니다.

- ① 교수가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과외활동)  
외부 강연 및 세미나, 학회참석, 커뮤니티 활동, 논문, 저술, 개발 활동, 전시/공연 등
- ② 학교의 직접적인 지원이나 개입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과외활동)  
산학 프로젝트, 국책 프로젝트, 학교 지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연구, 개발, 저술 활동 등

### 2.1. 개인과외활동 규정

외부 강연 및 세미나, 학회참석, 커뮤니티 활동, 논문/저술/개발 활동, 전시/공연 등 개인적으로 진행되는 과외 활동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 ① 과외활동에 사용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약을 두지 않습니다. 단, 외부에 commit 해야 하는 시간은 하루 8시간, 1주일 40시간 근무시간 기준의 50%를 넘어서는 것은 안됩니다. 과외 활동이 지나쳐 학생 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학생들의 피드백이 있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balance가 맞추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② 과외활동지원예산의 경우 교수 별로 일정 금액만큼 cap을 주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동아리 지도나 대회/공모전 참가, 서적/잡지 구매, 장비구매 등에 필요한 비용도 교수 과외활동지원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③ 연간 전임교수 개인 별 과외활동지원예산을 1000만원으로, 공동 예산을 500만원 X 전임교수 수로 책정됩니다.
- ④ 교수 개인 예산 외에도 공동 예산을 필요한 경우 사전 학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⑤ 연간 겸직교수 개인 별 과외활동지원예산은 240만원입니다. 겸직교수의 역할 중 공모전/동아리/기타학생지도를 위해 비용이 책정되었습니다.

- ⑥ 입사 첫 해에 책정되는 과외활동지원예산은 연간 예산에 남은 근무 일수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6월 말에 전임교수로 입사한 경우 개인 예산은 500만원이 공동 예산은 250만원이 책정됩니다. 겸직교수로 입사한 경우 120만원이 과외활동지원예산으로 책정됩니다.
- ⑦ 교수가 과외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한 이후에 법인카드정산 프로세스(현재 NEXT 법인카드 정산 절차와 동일)를 통해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과외활동예산 집행 결과는 정기적인 리뷰 및 공유를 통해 투명성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리뷰는 교수 전체가 모여 6개월에 한 번씩 진행합니다. 연말에 예산 사용 내역과 과외활동수행 결과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 내용은 교수 평가에 반영됩니다.
- ⑧ 겸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겸직 활동 시간이 50%를 넘지 않더라도, 정기적으로 commit 해야 하는 시간에 따라 교수 월급을 조정합니다. (겸직신청 - 겸직허가 - 급여조정 - 서약서 작성 절차) 겸직으로 인해 전임교수로서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겸직교수로 position이 바뀔 수 있습니다.
- ⑨ 외부강연, 세미나, 개인저술 활동 등을 통해 취득한 수익은 교수 개인에 귀속됩니다. 단, 전임교수의 경우 겸직을 통해 수익을 얻게 되면, 겸직에 투자되는 시간에 따라 수익금, 혹은 연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외부강연, 세미나 등은 수시로 일어나지만 겸직의 경우 특정 기간 동안 시간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⑩ 커뮤니티 장소가 필요한 경우 학교 수업이나 학생들의 학습 과정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교수의 지도와 책임 하에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교수과외활동에 대해 2013년도는 교수평가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교수들이 과외활동에 전념하기 보다 학생지도에 집중해야 하고, 더불어 과외활동을 처음부터 바로 제대로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으로 평가에 대한 유예 기간을 두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수 별 개인과외활동 예산과 집행에 대해서는 인사/재무담당자(現 고강순 선생)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2. 업무과외활동 규정

### 2.2.1. 산학과제

산학과제는 학교 차원에서 혹은 교수 개인 차원에서 기업체나 국가로부터 연구나 개발 관련 과제를 받아, 이에 합당한 과제 수행 비를 받는 경우를 뜻합니다. NEXT 교과 과정으로 진행되는 실전 프로젝트와는 별개입니다.

산학 과제를 수행할 때 학교가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고 어디까지 책임을 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3년도에 진행되는 산학과제에 대해서는 NEXT가 기관 차원에서 전혀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013년도에 계약이 되는 기업, 국책 과제는 모두 교수 개인의 입장에서 계약하고, 과제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법적, 도의적 책임도 교수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단, 과외활동제도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전체 투입 시간은 50%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년간 산학과제를 진행해 보고 운영 상의 문제점이나, NEXT가 기관 차원에서 개입하지 않아 큰 프로젝트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했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이후에 관련 규정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지적재산권 제도는 별도로 작성될 예정입니다.